구례에 국내 첫 반달가슴곰 보호시설

환경부 공모사업 최종 선정
마산면 황전리 일원 90억 투입
2024년까지 야외방사장 등 조성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반달가슴곰'.

구례군에 국내 최초의 반달가슴곰 보호시설<광주일보 2020년 11월 5일 13면>이 들어선다.

1일 구례군에 따르면 환경부의 '2021년도 사육곰 및 반달가슴곰 보호시설 공모사업'에 구례군이 최종 선정됐다.

구례군은 지리산 기슭인 마산면 황전리 일원 약 2만4000㎡ 부지에 9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4년까지 야외방사장, 사육장, 의료시설 등을 갖춘 반달가슴곰 생츄어리(안식처·보호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1980년대 초 정부가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곰을 들여와 재수출용으로 곰사육을 장려했으나, 1993년 우리나라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국제거래협약(CITES)'에 가입하면서 수출길이 막혀 웅담채취용으로 전락했다.

경제적 가치를 상실한 사육곰은 사회적 무관심과 농장주들의 방치로 인해 학대 수준의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동물단체에서 방치 반달가슴곰을 구조하더라도 국내 생츄어리 사업장이 없어 미국으로 보내야 하는 실정이었다.

구례군은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2020년부터 지역 주민과 멸종위기종의 공존문화를 조성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했다.

실제 ㈔반달가슴곰 친구들, 국립공원 연구원 남부보전센터와 함께 반달가슴곰 해설사 20명을 양성했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달가슴곰 보금자리지원센터를 구축했다.

구례군은 전국 농가에서 사육되는 사육곰과 반달가슴곰들을 이곳에 모아 보호하고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먼저 50여마리를 수용해 보호하면서 점차 개체수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현재 국내 사육곰은 28농가 420여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달가슴곰과 함께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수달에 대해서도 공존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과 생태관광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계획이다.

환경부도 밀렵으로 인해 지리산에서 어렵게 생존하고 있던 반달가슴곰들을 확인해 구례군에 종복원센터를 세우고 2004년부터 280억원을 투자해 종복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그동안의 공존문화 확산 노력과 더불어 민관 거버넌스와 기존 인프라 등이 잘 구축돼 있던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다"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생츄어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사람과 동물이 상생하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태국, 베트남 등 여러 국가에서는 사자, 코끼리, 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생츄어리를 운영하고 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 생추어리(sanctuary)
동물의 자연 서식지와 최대한 유사한 환경을 갖추고 동물들을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동부권 부동산 허위신고 성행"…광양경제청 실거래 위반 단속

거래가 적정성 결과 '부적정' 조사
탈세 혐의 포착시 세무조사 의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토지 및 주택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허위신고가 성행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부동산 거래에 대해 정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광양경제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신고가격 적정성 진단시스템에서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결과가 '부적정'으로 평가된 모든 사례에 대해 조사한다.

매도인과 매수인, 개인공인중개사 등 정밀조사 대상자에게 실제 거래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소명서를 제출받아 조사할 예정이다.

거짓 신고가 확인되면 부동산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전액 또는 반액(50%)을 감면해 줄 방침이다.

조사를 통해 편법증여 등 탈세 혐의가 짙은 경우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받도록 조치한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상시 조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 거래를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순천·광양시의회 "여순사건특별법 3월 국회서 제정해야"

여수·순천·광양시의회가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여순사건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정치권에 강하게 요구했다.

1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3개 시의회는 최근 공동성명을 내 "여순사건은 73년이 지난 지금도 특별법 제정에 이르지 못해 지역민들의 원망만 쌓여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유족과 지역민들의 간절한 열망을 생각하면 더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회는 이어 "여순사건 특별법은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켜 전남 동부권이 화합과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달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선행안건 논의가 길어지면서 3월 임시국회로 넘겨졌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나눔 세상 온정의 손길

한화솔루션 "재난지원금 어려운 이웃에 써 주세요"

나눔캠페인 동참
2000만원 기부

"재난지원금 놓고 갑니다."

한화솔루션㈜ 임직원들이 여수시민 한 명당 25만원씩 지원하는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했다.

1일 여수시에 따르면 한화솔루션 임직원들이 재난지원금 수령액 중 일부를 모금해 마련한 2000만원의 기부증서를 '행복한 나눔냉장고' 사업을 위해 써달라며 최근 권오봉 여수시장에 전달했다.

나눔 캠페인은 행복한 나눔냉장고에 들어갈 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소상공인에게 산 뒤 저소득층이 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어려운 이웃을 동시에 돕는 1석2조의 효과가 있다.

안인수 한화솔루션 전무는 "재난지원금 나눔 캠페인 동참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지난 12월에도 한화솔루션에서 행복한 나눔냉장고 사업에 1500만원을 후원했는데 이번에는 긴급재난지원금 나눔 캠페인으로 동참해 감사하다"면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한 나눔냉장고 사업은 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저소득층과 나눌 수 있다. 현재 한려·만덕·중앙·서강·월호동 5개소에 운영 중이며 올해 국동·여천동·동문동 3개소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현대제철 순천공장 한뜻회봉사대, 장학금 1500만원

현대제철 순천공장 한뜻회봉사대는 최근 순천시청을 방문해 순천지역 청소년 15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1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사진〉

한뜻회봉사대는 현대제철 순천공장 직원 32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21년째 순천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한뜻회봉사대는 회원 기부금 출연으로 재원을 마련, 매년 대학진학 학생에게 장학금 전달하고 있다. 또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20명에게는 매월 1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청소년 동반 트래킹,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미래 청소년들을 적극 후원하고 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광양동백로타리클럽, 백신 전용 냉장고 4대 기탁

광양동백로타리클럽(회장 정명옥)은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백신 전용 냉장고 4대(3200만원 상당)와 KF-94 마스크 2000장(80만원 상당) 등 4000만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에 기탁했다. 〈사진〉

이는 광양동백로타리클럽이 안전한 백신 보관과 예방접종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광양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제로타리 3610지구 글로벌 보조사업 공모사업으로 진행됐다.

백신 전용 냉장고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사용하고, 접종 완료 후에는 면지역 보건지소(옥룡·옥곡·진월·다압)에 설치해 백신을 보관하는데 사용하기로 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